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  
도시의 숲에서 인간을 발견하다  
우리 도시예찬

김진애 지음



“도시는 모조록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더 알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지고, 무엇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 자기가 사는 도시를 야끼고, 도시를 탐험하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좋은 도시에 대한 바람도 키운다. ‘살아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거닐고 싶다, 보고 싶다, 둘러보고 싶다’ 등 ‘살다’ 리스트가 늘어간다. ‘살다’가 많아질수록 삶은 더 흥미로워진다.”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 중에서)

도시는 날로 팽창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산다. 전문가들은 2050년에는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자본과 기술이 집중되고 있다.

건축가 김진애 박사가 도시 3부작을 펴냈다. 12가지 도시적 콘셉트를 담은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 인간의 본선과 욕망을 탐구하는 ‘도시의 숲에서 인간을 발견하다’, 저마다 다른 표정과 매력을 지닌 동네 이야기 ‘우리 도시예찬’이 그것.

먼저 ‘도시 이야기’는 익명성과 권력과 권위, 기억 예찬, 대비, 스토리텔링, 디코딩, 욕망, 부패에의 유혹, 현상과 구조, 돈과 표, 돌연변이와 진화라는 키워드로 도시를 바라본다.

무엇보다 저자는 도시적 삶의 근본인 익명성을 주목한다. 낯선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정의로운 관계 맺기에 있다고 강조한다.

“신분으로 서로를 규정하지 않을 것,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을 것, 나와 내가 같은 욕망과 두려움, 불안과 겁, 희망과 소망을 안고 있다고 인정할 것, 어디까지 다가갈 수 있는지 ‘친밀의 거리’에 대해서 공감할 것, 언젠가 다가가고 언제든 멀어질 수 있음을

인정할 것, 질척이지 않으면서도 체운을 느낄 수 있고 여유 있을 것.”

또한 이 책의 매력은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데 있다. 권력 공간부터 일상적 공간에 이르기까지 공간 구성이 지닌 의미를 특유의 전문적 시각으로 읽어낸다. 재개발로 인한 ‘대단지 아파트’ 탓에 싹틔줄처럼 얽혀 있던 골목길이 사라지는 현상을 주목한다. 그러면서 단지형 아파트가 아닌 도시적 삶을 추구하는 도시형 아파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책 ‘도시의 숲에서 인간을 발견하다’는 지난 2009년 출간한 ‘도시 읽는 CEO’를 새롭게 개정한 책이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는 주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

저자는 도시를 ‘오픈 북’으로 상징한다. 거대한 텍스트로 삼아 꼼꼼히 읽고 내용을 해석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을 해독한다. 인간이 창조한 최고의 발명품인 도시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을 모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일이다.

책에는 인생에서 첫 발견한 종로, 서울 바깥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도시 전주, 20대 말 유흥시절 만났던 보스턴을 비교하며 당시의 생활함과 인생의 의미를 풀어낸다. 또한 근대 도시의 양대 산맥인 런던과 파리를 읽어 나갈 때의 기억과 지적인 사유의 과

정도 흥미롭다. 아울러 김정호가 만든 고지도인 ‘수선전도’와 거대도시 서울을 함께 읽으며 우리 도시, 우리 동네를 그려보는 법도 알려준다.

세 번째 책 ‘우리 도시예찬’은 “좋은 동네가 모여 좋은 도시를 만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우리 도시는 ‘예찬’보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때가 더 많다. 그러나 도시의 익명성과 자유를 사랑하고 도시의 무질서를 견디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질서를 찾는 ‘진짜 도시인’이 될 것을 권한다.

우리 도시 매력의 핵심은 바로 ‘잡종성’이다. ‘잡종 도시’는 개별성이 강한 많은 요소가 섞여 있는데다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다른 문화의 것을 차용하는 데 너그럽고 역사적 특징이 중첩돼 나타나기도 한다. 저자는 켜켜이 쌓여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는 특색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잡종도시’가 발하는 특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는 우리 도시의 잡종성에 매력을 느낀다. 물론 전통적으로 순종성이 강한 공간의 매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시간이 무한한 듯한 전통 마을, 전통 동네, 전통 건축의 그 순수한 공간의 멋에 빠지는 것도 좋다.”

〈다산초당·각 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30여 년 동안의 숙원 끝에 경전선이 폐선 되고 5만 평의 땅은 푸른길로 되었다. 이 길은 광주라는 도시를 하나로 엮어내는 ‘비취목걸이’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산초당 제공>

## 할아버지와 꿀벌과 나 메리디스 메이 지음



꿀벌에게서 인생을 배운 한 소년의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실화가 한편의 소설로 나왔다. 상처 입은 소녀와 양봉가 할아버지 그리고 꿀벌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는 2019년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선정됐다. 바로 작가 메리디스 메이 지가 펴낸 ‘할아버지와 꿀벌과 나’.

저자는 저널리스트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 PEN USA 문학상을 받았으며 오슬랜드 대학에서 팟캐스팅을 가르치고 있다. 회고록의 성격을 띤 이번 작품집은 엄마 대신 양봉가 할아버지의 보살핌과 꿀벌에 기대어 산 호년의 성장담이기도 하다.

저자는 다섯 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 동생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외가에 맡겨진다. 양봉가 할아버지와 엄격한 할머니가 어린 남매를 보살핀다. 인근 연안에서 약 100 개의 벌통으로 벌을 치며 뒷마당의 넓은 버스에서 꿀을 만드는 할아버지 덕분에 메리디스는 자연스럽게 꿀벌의 세계를 알게 된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녀에게 벌과 양봉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 주고 다양한 비유를 들어 삶에 대해 알려준다. 어른들에 대한 상처가 깊었던 저자는 꿀벌의 존재와 생태에 몰입하며 점차 상처를 극복해나간다. 그녀는 꿀벌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는 물론 의리와 생선 등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등을 알게 된다.

‘커커스 리뷰스’ 지는 “아이들이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자연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흥미롭고 희망적인 책”이라고 평한다.

〈흐름출판·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늦저녁의 버스킹 김중해 지음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지낸 김중해 시인이 12번째 신작시집 ‘늦저녁의 버스킹’을 펴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시로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시인은 그동안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는 따뜻한 시, 영혼의 갈증을 충족해주는 생수 같은 시, 눈물이나 이슬이 묻어 있는 듯한 물기 있는 서정시’를 쓰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로 시력 57년을 맞는 시인은 시집 ‘모두 허공이야’를 발간한 지 3년 8개월 만에 펴낸 작품집에서 간결하고 함축적인 언어로 삶과 자연의 섭리를 풀어낸다. 또한 파스하고 아름다운 서정으로 삶과 죽음을 통찰한다. 아울러 시의 새로운 서사까지 담고 있어 그의 시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나뭇잎 떨어지는 저녁이 와서/ 내 몸속에 악기(樂器)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중략)/ 삶의 길이 서로 저마다 달라서/ 네 거리는 저 혼자 신호등 불빛을 바꾼다/ 오늘밤 이곳이면 적당하다/ 이 거리에 자리를 펴리라/ 나뭇잎 떨어지고 해지는 저녁/ 내 몸속의 악기를 모두 꺼내어 연주하리라...”

표제시 ‘늦저녁의 버스킹’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악기가 되어 있음을 감지한’ 화자는 주제자도 자신이고 관객도 자신인 자신만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내면에 드리워진 서정의 무늬라는 것을 화자는 인식한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지상과 우주의 한쪽 귀퉁이에서 내가 가진 모든 악기를 나의 몸속에서 끄집어내어 연주하고 싶다”며 “나는 좀 더 사람의 몸이 가 닿은 고통과 환희의 시를 쓰고 싶다”고 밝혔다.

〈문학세계사·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여성 공학자로 산다는 것 스테파니 슬로컴 지음



“당신이 공학자라고요?” ‘여성 공학자로 산다는 것’은 공학 분야에서 성 차별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조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여성 공학자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라서’ 성공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구조 설계 공학자인 저자 스테파니 슬로컴은 건강관리 시설과 교육기관 건물의 구조 설계 분야에서 15년간 일해 온 베테랑 엔지니어이다. 저자는 여성 공학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싸우면서 좌절하고 지쳐갔었다. ‘여성’이라는 점은 지금까지 삶을 개척하는 데 있어 아무런 차별이나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녀가 공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현장에 나선 그 순간부터 현실은 전혀 달랐다.

그는 어떻게 해야 공학자로서 경력이 바람직하게 발전할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공 연구에 몰두하고, 독서를 하고, 동료 여성 공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는 등

책은 ‘당신은 누구인가? 공학적으로 사고하기’, ‘전문가가 되기’, ‘리더는 소통을 잘한다’ 등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직장에서 부딪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공학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당신이 진정 바랐던 바로 그 여성 공학자가 되라.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어떤 압력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남을 리드하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공학자와 경쟁하는 그런 공학자가 되라”고 전한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학종유감 이천중 지음



2019년은 역사책에 ‘학종의 해’로 기록 될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SKY 캐슬’로 시작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논란은 지난 여름 ‘조국 사태’로 폭발했다. 여기서 촉발된 대입제도개편 논의로 ‘정시 확대론’과 ‘학종 개선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학종유감’의 저자 세계일보 교육팀장 이천중 기사는 ‘금수저, 갑갑이, 쓰앵님’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학종을 살펴보고, 학종의 주요당사자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의 시선을 담았다. 건국 이후 입시 관련 대형 사건들을 되짚으며 학종과 내신, 고교 서열화를 뿌리까지 파고들었다.

책은 3장으로 구성됐다. “2019년은 역사책에 ‘학종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로 시작하는 1장에서는 학종을 살펴보는 세 가지 키워드로 금수저, 갑갑이, 쓰앵님을 꼽고 그 실상을 들여다 본다. ‘학종=금수저 전형’이라는 쓸쓸한 방정식이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보며, 구멍 송송 뚫린 생기부와 애타는 학부모를 통해 등골 브레이크가 된 학종 사교육의 현실을 파헤친다.

2장에서는 학종을 바라보는 세 시선을 담았다. 빨간 학생과 학부모는 ‘학종’이 가장 불평한 전형이라고 입을 모으고, 착잡한 교사는 입시 앞에만 서면 작아지게 된다. 답답한 입학사정관은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은 ‘오해’라고 강조한다.

3장에서는 대형 사건에서 찾는 입시 코드를 살펴본다. 조국 파문으로 보는 ‘입학사정관제와 학종’에서부터 속명여고 사건으로 다시 보는 ‘내신’, 최근 교육부의 발표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자사고 전쟁과 고교 서열화’ 등 대형 사건을 통해 학종을 둘러싼 논란을 파헤친다.

〈카시오페아·1만6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